

# 목포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업, 매출 늘고 일자리 증가

### 역량강화 성과 보고회...신 시장 개척 38건·제품 개발 20건 12개 기업을 매출 3억5000만원 증가...신규 일자리 23명 창출

목포시가 올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을 벌인 결과 12개 기업의 매출이 3억5000만원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목포시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목포 블루오션 호텔 대연홀에서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지방비를 출자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산산업의 생산·가공·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12개사는 올해 23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센터가 제품 개발과 판촉, 사업과 교육, 생산 지원 등을 벌인 결과 신시장 개척 38건, 신제품 개발

20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12개사의 지원 제품 매출은 전년보다 3억5000만원 늘었다. 매출 증가액은 국내 2억3000만원, 수출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2개사의 총매출은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원(25%) 증가했다.

센터는 자금 확보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유망한 중소 수산기업을 발굴해 신제품 개발 등을 도왔다. 초기 창업기업에는 신제품·시제품 개발을, 소기업에 대상으로 공동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국내외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지원과 기술 선도형 가공제품 개발지원 등의 '도약기업 육성지원', 홍보·마케팅·판로개척 지원·사업과 상담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지원'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의 지원 현황과 성과 보고를 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 통영시 등 자치단체와 수해기업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이영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이 제품개발 지원 성과와 공동 수요기술 개발 보급에 관한 발표를 했고, 부산신라대학교 수산물종합연구소, 통영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참여기관의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곳에서는 목포와 부산, 통영 수해기업 29개사가 올해 개발한 민어죽, 참돔소시지, 양파김스낵, 홍어만두 등 간편식을 포함한 특색 있는 제품이 전시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보고회가 국내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수산식품 발전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 수산식품이 목포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가 지난 19일 연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목포 수산기업이 만든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신안 암태 추포도 '맛의 섬'으로 도약한다

### 음식관광 명소화 투자 심사 통과 420억 투입 다이닝파크 등 조성 체류 관광객 수용...2027년 완공

신안 섬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안군은 한차례 고배를 마셨던 추포도 음식관광 테마 명소화 사업이 최근 중앙투자 심사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운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신안군에서 추진한 관광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을 섬 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식문화복합센터(연면적 6970㎡)는 인포메이션, 연구소,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식문화 연구·교육·체험을 위한 시설이 두루 갖추고 있으며, 숙소 36실을 계획해 체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산물판매점, 레스토랑, 푸드비치야시장, 다이닝파크, 산책로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추포도 섬 음식 테마파크 조감도.

군은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늦어도 2025년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K-관광 특산도와 추포도 음식 테마 건물 매각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여한 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포도는 동서로 150km, 남북으로 100km에 펼쳐진 신안의 중심점에 있다"며 "신안군이 보유한 섬 음식문화와 자원화를 통해 세계적인 맛의 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 “목포시내버스 노선권 210억 감정평가 수용”

###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회장 “하루빨리 시에 사업 양도”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의 이한철(사진)회장이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에서 예상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며 더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19일 이 같이 밝혔다.

목포시내버스 노선권은 최근 목포시와 시의회, 회사 측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2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시내버스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일련의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들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제가 부를 축적했다는 것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드렸다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고 강하게 부정했다.

목포시내버스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37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임직원 360여 명의 퇴직금 143억원과 은행부채 73억원 등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직원 급여 충당 등을 위해 건물 매각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 155억원의 사실상 상환받기 어렵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누적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해 지난해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 “향후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목포시와 공론화위원회

가 권고한 노선 전면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과 내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비상경영체제를 연장하고, 신규사업자 모집 및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 승계를 위한 신규 사업자와의 협의, 법인이 최종적으로 소멸한 이후에도 차고지 등 관련 인프라 제공 등을 약속하고,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신규사업자 모집에 불참할 것을 공언했다.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60여 년간 이 회장 선대부터 기업으로 이어져 왔으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7월부터 경영을 포기하면서 목포시가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광군, 식량·원에 평가 대상 '3관왕'

### 식량정책·원예산업·아열대 농업...3년 연속 수상

영광군이 전남도의 식량·원에 평가에서 21개 시군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다.

영광군은 군이 전남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량정책과 원예산업, 아열대농업 등 3개 분야 1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전라남도 식품원에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식량·원에평가 우수상, 지난해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로 3연속 수상을 이어갔다.

군은 올해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농식품유통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농업선진 지자체를 표방하는 영광군은 민선8기 들어 '농업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야 위대한 영광이 실현된다'는 기치 아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식량정책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시책을 추진

해왔다.

전남 최초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군비를 ha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벼 적정생산으로 수확기 짧았던 안정에 기여했다.

6~7월 집중호우 피해 필지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휴경까지도 전락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지속적인 시설하우스 지원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에 원예작물 연중생산 체계 구축과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 확대하여 미래농업을 준비 중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교육도시 해남’ 기반 조성 착착

### 군 교육재단, 학생·군민 교육 지원·장학 사업·진로캠프 등 진행

해남군이 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과 군민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교육지원과 장학사업 등 교육전담기구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해남군으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는 군 출자출연기관이다.

지난 7월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비전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첫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을 시작으로, 해남군 장학생 278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했다.

초중 방과후 학교 운영, 영재 교육원 등 인재육성사업 지원과 명문학교육성 사업 지원 등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펼쳐

왔다.

특히 교육재단 출범과 함께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군민 수요에 맞춘 지역 교육의 현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 비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내년 사업도 눈길을 끈다.

재단은 '해남에서 크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먼단위 작은학교 중학생들의 해외 문화탐방 지원사업과 해외청소년 상호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해남형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ESG 교육과 활동, 소프트웨어·AI 창의융합교육 등 신산업 분야와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교육 지원과 소그룹 진로코칭, 청소년 진로캠프 등 내일을 찾아가는 진로교육도 진행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무안군 '지방재정대상' 특별상

### 흑자 재정 운영 호평...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무안군을 대표해 김성훈(왼쪽 세번째) 무안 부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장관 표창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재정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대

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다.

무안군은 평가에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 5.26%보다 월등히 높은 10.70%의 흑자재정을 유지했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 4.4%와 지방채 발행 없는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 분야 '가' 등급을 기록했다.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전국 평균 0.95%보다 월등히 낮은 0.32%를 유지했고, 세외수입증감률이 전년 대비 38.91%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효율성 분야가 높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 확대

### 5억7680만원 투입 2884명에 20만원 한도 카드 발급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처음 확대해 운영했다.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업 지역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2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진도군은 올해 4~5월 지급 대상자를 뽑아 7월부터 지급했다. 진도군은 올해 5억7680만원을 투입해 지역에서 1년 이상 산 여성 농어업인 2884명

에게 행복이용권을 줬다.

여기에 만 76세 이상 만 80세 이하 478명의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군비 9560만원을 들여 행복이용권을 지급했다.

전남에서 자체 사업비를 들여 만 76세 이상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행복이용권을 주는 자치단체는 진도, 담양, 강진 등 3곳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에서도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